

보 도 자 료



*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.

◆ 대외협력팀

팀장 이지영 / 담당 조운호

Tel : 032-770-8630, 8631

Fax : 032-770-8709

◆ 2015. 2. 12.(목) 배포

◆ 총 2쪽

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해단식 개최

- 장보고과학기지 1차, 세종과학기지 27차,
남극에서의 1년간의 월동근무 무사히 마쳐 -

- 지난 1년간 남극에 파견되어 각종 연구 활동을 펼쳐온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해단식이 2월 12일 16시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열린다. 특히 이번 해단식은 남극대륙 연구의 첫 발을 내디딘 장보고과학기지 월동대원들이 참여하여 그 의미가 남다르다.
- 장보고과학기지 제1차 월동대는 진동민 대장의 지휘 아래, 월동 경험이 있는 인원 1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되었다. 남극대륙내 첫 월동이었기 때문에 월동 유경험자 위주로 파견하여 낮은 환경에서의 적응력 및 위기 대처능력을 제고할 수 있었다.
- 장보고과학기지는 지난 1년간 11kg 대형 운석 및 5개 빙저호의 발견, 멜버른 가스분출 관측 등 우리나라 극지과학연구 영역을 확대하였다. 이러한 성과들을 토대로 향후 대륙 기지 보유 국가로서 극지 연구 선도국과 국제 공동연구 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- 한편, 세종과학기지는 27번째 월동으로서 허순도 대장을 포함한 18명의 인원이 파견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.
- 해단식은 우수근무대원 포상, 대한민국 극지과학연구단 단기 반납, 월동연구대 활동보고 순서로 진행된다.
- 현재 남극에는 장보고과학기지 2차 월동대 16명, 세종과학기지 28차 월동대 17명이 파견돼 근무를 하고 있다. 앞으로 남극 내 두 상설기지의 운영으로 극지연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극지의 한국,
미래의 도전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극지연구소 대외협력팀 이지영(☎ 032-770-8630 / 010-3602-9305) 또는
조운호 담당(☎ 032-770-8631 / 010-4729-2406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